

# 전국소년체전 폐막...체육 꿈나무들 미래 봤다



##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꿈나무들의 축제 '제53회 전국소년체전'이 나흘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28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25일부터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1만 8757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목포를 비롯한 전남 일대에서 펼쳐졌다.

소년체전에 참가한 광주·전남 선수단은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뽐냈다.

금메달 20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33개 등 총 66개의 메달을 수확한 전남 선수단은 연패 달성 및 신기록 경신 등 빛나는 활약을 보였다.

육상에서 구례여중 최지우가 여중부 400m에서 56.68의 기록으로 3연패를 기록했고, 목포하당중 김태빈이 여중부 포환던지기과 원반던지기에서 각각 13.64m, 35.75m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실력으로 2관왕에 올랐다.

바둑에선 남중부 양계봉·이승석·임지호와 여중부 악지우·최지은·황기환(이상 한국바둑중)이 제 51·52회 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하며 3연패를 기록했다.

완도중 김태양은 역도 남중부 81kg급에서 대회신 기록(인상, 합계)을 세우며 3관왕에 등극했다. 김태양은 인상에서 121kg로 1위, 용상에서 148kg로 1위, 총 269kg를 들어올리며 합계 1위에 올랐다.

사격 여중부 송수희는 7위로 결선에 진출했지만 뒷심을 발휘하며 본선에서 부별신기록인 251.9 점을 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 선수단은 금메달 18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22개로 총 58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광주체육의 미래를 밝혔다.

특히 광주체육은 광주선수단 획득 메달 중 30개를 책임지면서 광주 엘리트 체육의 요람이라는 명성을 굳건히 했다.

광주체육 이우리는 근대3종 개인전 1위를 시작으로 단체전과 계주에서도 우승을 이끌며 3관왕에 올랐다. 이우리는 이번 대회 근대3종 최우수선수로도 선정됐다.

17개 시도 1만8757명 목포 열전  
광주 금 18개 등 메달 58개 획득  
전남 금 20·은 13·동 33 총 66개  
연패 달성·신기록 경신 쏟아져

단체전과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이지아, 송현서, 양보민은 2관왕에 올랐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근대3종 경기장에 방문해 이들에게 직접 메달을 수여했다.

광주체육 이다은은 역도 81kg급에서 인상 77kg, 용상 98kg, 합계 175kg으로 각각 1위에 오르며 3개의 금메달을 휩쓸었다.

광주체육 노효림은 조정 여중부 싱글스킬에서 3분53초55의 기록으로 1위에 오르며 최우수선수로도 선정됐다.

대회 마지막 날인 28일, 광주·전남 선수단은 단체대진종목에서 활약하며 금메달을 더했다.

소프트테니스에서는 고흥동초가 남중부 단체전 1위를 기록했다. 고흥동초 선수단은 부전승으로 오른 4장에서 강원선수단에 2-0으로 승리한 뒤 준결승에서 경북을 2-0으로 꺾었다. 결승에서는 경기선수단을 상대로 2-0 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야구 남중부에 출전한 광주 동성중은 제33회 대회 금메달 이후 20년만에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8강에서 천안북중(천안)에 5-9로 승리한 동성중은 4강에서 경북포항중을 6-4로 밀어냈다. 인천과의 준결승에서 6-3승을 거둔 동성중은 결승에서 강남중을 9-7로 꺾으며 남중부 정상에 올랐다. 동성중 이재웅은 야구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농구에서는 광주 수피아여중이 여중부 3연패를 달성했다. 1회전에서 라이벌인 숙명여중(서울)을 만나 54-50으로 승리한 수피아여중은 결승전에서 조직력을 앞세워 수원제일중(경기)에 여유롭게 77-56 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따냈다. 최우수선수로 수피아여중 김담희가 선정됐다.

광주시체육회 전갑수 회장은 "승패를 떠나 최선을 다해 준 선수들에게 큰 감동을 받았다. 선수들의 땀과 종목단체의 지원, 학교와 학부모의 사랑, 지도자의 열정이 모두 더해져 결실이다"고 말했다.

대회에 앞서 "학생들이 출전하는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힌 바 있는 전남도체육회 송진호 회장은 "좋은 결과와 함께 우리 선수들이 큰 부상 없이 대회를 잘 마치는 데 함께해주는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육상 여자 400m에서 3연패를 달성한 구례여중 최지우. <전남도체육회 제공>



동성중 선수단이 야구 남중부 우승을 차지하고 행가래를 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한국바둑중 악지우가 바둑 여중부 경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전남도체육회 제공>



제53회 전국소년체전 근대3종 3관왕에 오른 광주체육 이우리. <광주시체육회 제공>



수피아여중 선수단이 농구 여중부 정상에 올랐다. 전갑수(가운데) 광주시체육회장이 수피아여중 선수단을 방문해 격려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 ‘지는 해’ 나달

‘112회 우승’ 프랑스오픈 테니스 1회전 탈락...“은퇴 발표 자리 아니다”

라파엘 나달(27위·스페인)이 프랑스오픈 테니스 대회(총상금 5350만 유로·약 794억원) 남자 단식 1회전에서 탈락했다.

나달은 27일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롤랑가로스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남자 단식 1회전에서 알렉산더 츠베레프(4위·독일)에게 0-3(3-6 6-7(5-7) 3-6)으로 졌다.

이 대회에서 통산 14번이나 우승하며 강세를 보였던 나달은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 프랑스오픈이 될 수도 있는 올해 대회를 1회전 탈락으로 마무리했다. 그의 프랑스오픈 통산 전적은 112승 4패가 됐다.

나달이 프랑스오픈에서 패한 것은 2021년 준결승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와 대결 이후 이번이 3년 만이고, 1회전 탈락은 처음이다.

1986년생 나달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허리 부상 등으로 2023년 1월 호주오픈 이

후 1년 정도 공백기를 거쳤다.

2022년 프랑스오픈에서 우승, 통산 22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따냈으나 지난해에는 프랑스오픈에 도전하지 못했다.

올해 1월 호주오픈 출전을 위해 코트에 돌아온 그는 다리 근육 부상 때문에 호주오픈에 뛰지 못했고, 4월에 코트에 복귀했다. 이후 자신이 강세를 보이는 클레이코트 대회에 이번 프랑스오픈을 포함해 4차례 출전했으나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또 이달 초 이탈리아 로마 마스터스 2회전 패배에 이어 나달이 클레이코트 경기에서 2연패를 당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나달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늘이 은퇴를 발표하는 자리라 아니다”라면서도 “많은 응원을 보내준 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여러분과 다시 만나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연합뉴스

## ‘여전해’ 호날두

사우디 리그 35골 ‘리그 최다’...세계 첫 4개 리그 득점왕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9·알나스르)가 사우디 아라비아 프로축구 역대 한 시즌 최다 골 기록을 새로 쓰며 개인 통산 ‘4개 리그 득점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호날두는 28일 열린 알이타하드와의 2023-2024 사우디 프로리그 34라운드 최종전에서 2골을 몰아치는 맹활약을 펼쳤다.

알나스르는 4-2 대승을 거두고 승점 82를 기록, 알힐랄(승점 96)에 이어 2위로 정규리그를 끝냈다.

최종전에서 멀티 골을 터트린 호날두는 이번 시즌 31경기에서 35골을 기록하며 알렉산드르 미르노비치(알힐랄·27골)와의 격차를 8골로 벌리고 당당히 득점왕에 올랐다.

특히 호날두가 작성한 35골은 사우디 리그 역대 한 시즌 최다 골이다.

호날두는 2018-2019시즌 모로코 출신으로 알

나스르에서 뛰었던 알데라자크 함달라가 작성한 기존 최다 골인 34골을 5년 만에 경신했다.

이날 호날두는 전반 추가시간 선제골을 터트리더니 후반 24분 추가 골까지 꽂아 한 시즌 최다 골 신기록을 달성했다.

특히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헤트트릭만 4차례 뽑아낸 호날두는 공식전 50경기에 출전해 50골(정규리그 35골·컵대회 3골·ACL 6골·아랍컵 챔피언스컵 6골)을 뽑아내는 괴력을 발휘했다. 2023년 1월부터 합치면 공식전 69경기에서 64골이다.

앞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2007-2008시즌), 스페인 라리가(2010-2011·2013-2014·2014-2015시즌), 이탈리아 세리에A(2020-2021시즌)에서 득점왕을 맞았던 호날두는 사우디 리그까지 합치면 통산 4개 리그 득점왕의 기쁨을 누렸다. /연합뉴스

## ‘절대 강자’ 신진서 9단 800승

세계 바둑계의 절대 강자 신진서(24) 9단이 개인 통산 800승을 달성했다.

신진서는 27일 중국 저장성 창싱에서 열린 2024 중국 갑조리그 1라운드 개막전에서 중국의 리웨이징 9단에게 169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다.

이로써 신진서는 프로 입단 이후 11년 10개월 만에 800승(1무 212패 1무효) 고지에 올랐다. 현역 프로기사 중 800승을 달성한 것은 신진서가 26번째다.

2012년 7월 제1회 영재입단대회를 통과해 프로 기사가 된 신진서는 이듬해인 2013년 1월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예선에서 권오민 5단을 상대로 데뷔 첫 승을 거뒀다.

2021년 1월 제13회 출란배 4강에서 렌샤오 9단을 꺾고 500승 고지에 오른 신진서는 전성기를 구가하며 3년여만에 300승을 추가했다.

최근 4년 연속 승률 1위에 오른 신진서는 통산 승률 79.05%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한국 바둑 역대 최다승은 1963승 7무 842패 승률 0.700을 기록한 조훈현 9단이 보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이창훈 개인전 <도시의 삐에로>

일시 : 2024-06-07(금) ~ 2024-07-0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년 광주상설공연(6월)

일시 : 2024-06-01(토) ~ 2024-06-30(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도시의 삐에로

이창훈 개인전